“우결했던 사이…눈빛만 봐도 알아요”

〈우리 결혼했어요〉

SBS ‘우리 갑순이’ 김소은·송재림…10년 사귄 커플로 연기 호흡

7년 만의 복귀 이완·김규리 등 출연…‘그래 그런거야’ 후속 방송

“‘우리 결혼했어요’ 할 때도 우리 나중에 드라마에서 만나면 재밌겠다는 이야기했었는데 실제로 다시 만나게 되니 반갑고 예전 생각도 나네요.”

MBC TV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9개월간 가상부부로 호흡을 맞춘 배우 김소은(27)과 송재림(31)이 SBS에서 재회한다. ‘그래 그런거야’ 후속으로 이달 말 첫 방송을 하는 SBS TV ‘우리 갑순이’에서다.

김소은은 “‘우결’에서 함께 했던 9개월의 시간 덕에 10년 사귄 커플의 모습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극 중에서 10년간 사귄 커플을 연기한다. 김소은은 교사를 꿈꾸는 신갑순을, 송재림은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허갑돌을 맡았다. 이 드라마는 ‘조강지처 클럽’ ‘소문난 칠공주’ ‘왕가네 식구들’ 등을 쓴 문영남 작가의 신작이다. ‘상속자들’ ‘가면’을 연출한 부성철 SBS PD가 연출을 맡았다. 올림픽 일정 때문에 첫 방송 날짜는 미정이다.

‘우리 갑순이’는 안 그래도 취업을 하지 못해 막막한 현실에 소위 사고를 치게 되면서 야단법석이 벌어진다.

“작품에 들어가면 처음에 낯가림의 시간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송재림의 말에 김소은이 곧장 “서로 잘 알아서 좋은 점이 많다”는 맞장구가 돌아왔다.

갑순이 역은 당초 배우 이하나가 출연하기로 했다가 무산됐다.

김소은은 “첫 미팅 때 작가님이 곧장 대본 4권을 주시면서 리딩을 시키셨다”며 “그 덕에 곧장 갑순이의 감정에 이입하게 됐다.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만 하려고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송재림(31)이 맡은 갑돌이가 처한 상황이다. 송재림은 “갑돌이는 앞날이 깜깜한 친구다. 보시는 분들도 갑갑함을 느끼실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문영남 작가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드라마도 있지만 이렇게 현실을 보여주고 그걸 욕하면서 대리만족할 수 있게 해주는 드라마도 있다’고 말씀해주셨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랜 시간 알던 사람과 연기를 하니 심적인 부담도 덜 하고, 둘 다 ‘우결’에서 보여줬던 실제 모습과 캐릭터가 비슷해 굉장히 편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재림은 김소은을 보며 “갑순이가 남자를 쥐 잡듯이 잡는 모습이나 억척스럽고 드센 모습이 실제와 닮았다”고 말해 김소은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다.

서로를 잘 아는 두 사람이니만큼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로를 놀리는 듯한 말이 여러 차례 오가 친근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허다해’라는 역할을 맡은 김규리는 “허다해는 내일이 없이 사는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작가님이 ‘이런 사람들이 하도 허다해서 허다해야’라고 하셨어요”라며 깔깔 웃었다.

김규리는 “초반에는 갑순이와 갑돌이의 이야기가 주로 전개되면서 제가 출연하는 분량은 적다. 하지만 등장만으로도 산소가 도는 것 같이 생기를 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다.

갑돌이네에 허다해가 있다면 갑순이네는 갑순이의 오빠 ‘신세계’가 있다. 이 역할은 입대 이후 TV 활동이 끊겼던 이완(32)이 맡았다. 7년 만의 드라마 출연이다.

이완은 “20살 때 데뷔해 입대 전까지 너무 정신없이 살았다. 군에 있으면서 제대하면 여행도 많이 하고 여러 생각을 할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그간 공백의 이유를 설명했다.

허다해와 달리 신세계는 착하고 공부도 잘했던 ‘모범생’ 의사다. 집안 형편 때문에 부잣집에 ‘데릴사위’ 격으로 장가를 갔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품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상륙작전’ 악평 딛고 주말 흥행 1위

2위 ‘부산행’ 누적 관객 840만…천만 돌파 눈앞

성수기 주말 극장가에서 영화 ‘인천상륙작전’이 ‘부산행’을 넘어 새 강자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1일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인천상륙작전’은 지난달 29~31일 스크린 1천47개에서 1만6249회 상영되면서 관객 179만3870명(매출액 점유율 36.5%)을 모아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인천상륙작전’은 시사회 후 언론의 혹평에도 지난달 27일 개봉한 이래 줄곧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영화 ‘빅4’ 중 2번째 주자인 ‘인천상륙작전’이 관객몰이에 성공하면서 기존 강자인 ‘부산행’은 정상 자리에서 내려왔다. 지난 주말 사흘간 관객 145만3139명(30.3%)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했다. 스크린 수는 1018개, 상영횟수는 1만6205회로 ‘인천상륙작전’과 엇비슷했다.

‘부산행’은 지난달 31일 현재 누적 관객 수가 840만8856명으로, 이번 주말께 관객 1천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 박스오피스 3위는 맷 데이먼이 복귀해 화제를 모은 ‘제이슨 본’이 차지했다. 스크린 826개에서 모두 1만1649회 상영되면서 관객 101만7552명(21.8%)을 동원했다.

‘제이슨 본’은 올여름 개봉한 외화 중 가장 빠른 개봉 4일째에 관객 10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디즈니 신작 애니메이션 ‘도리를 찾아서’가 관객 17만2903명으로, 박스오피스 4위를 기록하며 장기 흥행에 들어갔다. 지난달 6일 개봉해 흥행 상위 10위권 영화 중 상영일수가 가장 오래됐다. /연합뉴스

이민호♡수지 연애전선 이상 무

소속사 결별설 부인 “여전히 잘 만나고 있어요”

한류스타 커플인 배우 이민호와 가수 겸 배우 수지가 결별설에 휩싸였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호의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와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1일 한 매체의 결별 보도에 대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본인에게 확인 결과 두 사람은 여전히 잘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두 사람이 바쁜 스케줄로 인해 교제 1년 6개월 만에 결별했으며 연인에서 좋은 선후배 사이로 남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의 결별설은 지난해 9월에도 한 차례 불거져 양측 소속사가 “두 사람이 잘 만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민호는 ‘꽃보다 남자’, ‘상속자들’ 등의 드라마를 통해 아시아를 주름잡는 한류스타로 등극했으며, 걸그룹 미쓰에이로 활동하며 배우로 성장한 수지는 현재 김우빈과 함께 KBS 2TV 수목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에 출연 중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욱정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 365 25 TV 블로그 꼼지락 30 아침 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50 안녕 우리말	00 다큐멘터리 3일(재)	00 월화특별기획 〈몬스터〉(재)	00 닥터 365 05 특집 다큐멘터리 〈문명〉
12	00 KBS 뉴스 12	00 생생정보 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재) 55 토크 콘서트 화통(재)
1	00 여름특선 행복한 지도 30 여름특선 영상앨범 산	00 1대100(재)	20 문화사색(재)	55 TV블로그 꼼지락
2	00 2016 리우올림픽 특집 다시보는 대한민국 올림픽 명승부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5 내꺼야 폴록 30 꾸러기 식사교실	00 영재 발굴단(재)
3	15 2016 리우올림픽 특집 〈리우, 우리별을 꿈꾸다〉 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감성애니 하루 55 튼튼생활체조	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똑? 똑! 키즈스쿨 55 아빠 어릴 적엔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제6회 산토끼 창작동요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특공대(재)	00 MBC 이브닝 뉴스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시사현장 맥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꼼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별난 가족	30 2016 리우올림픽 특집 〈리우, 우리별을 꿈꾸다〉 55 1대 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맨 인 블랙박스
9	00 KBS 뉴스루		30 리얼스토리 눈	
10	00 여름특집 KBS 대기획 〈디렉터스컷 피쉬플래닛〉 55 숨터	00 월화드라마 〈뷰티풀 마인드〉	00 월화특별기획 〈몬스터〉	00 월화드라마 〈닥터스〉
11	00 KBS 뉴스라인 40 리우 올림픽 특선다큐 〈아마존의 축구전사〉	10 리우 올림픽 기획 우리동네 예체능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30 한국인의 밥상(재)	35 2016 리우올림픽 특집 〈리우, 우리별을 꿈꾸다〉(재)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05:30 건강한아침
05:4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06:10 EBS 특별기획 통찰(재)
07:00 레이디 버그
07:30 로보카 폴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1~3
08:45 코코코 다코
09:00 코코몽3
09:30 원더볼즈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공신이 알려주는 여름방학 기초 학습법〉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문동일의 누룩빌레 주먹밥〉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시대공감(재)
12:40 지식채널e
12:45 숨은 한국 찾기(재)
13:35 뷰티풀 코리아 〈자연 품은 조선의 궁궐, 창덕궁〉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3:50 원더볼즈
14:00 로보카 폴리
14:30 허풍선이 과학쇼
15:00 모피와 친구들
15:15 세계사 시간여행
15:30 피터레빗
15:40 꼬마기사 마이크(재)
15:50 뽀로로와 노래해요
16:00 코코몽3
16:30 코코코 다코(재)
16:45 딩동댕 유치원1~3(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
17:45 로보카 폴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레이디 버그(재)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20:40 다큐 오늘 〈태백산의 여름〉
20:50 세계테마기행 〈여름의 선물, 알래스카 2부 백야, 한여름 밤의 축제〉
21:30 한국기행 〈하늘 아래 첫 동네 2부 길 끝에 사람이 산다〉
21:50 EBS 다큐프라임 〈넘버스 5부 천공의 수, 허수〉
22:4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아버지의 마지막 상어잡이〉
23:35 시대공감
24:05 지식채널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일(음 6월 30일 丙辰)

子 48년생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다. 60년생 마음고생이 심할 수 있는 날이다. 72년생 전혀 예상치 못 했던 문제점이 보인다. 84년생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6, 04

丑 49년생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던 것이 성과를 도출할 수 있겠다. 61년생 취약점을 보완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니라. 73년생 적당히 분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85년생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진행한다면 소기의 목적에 이른다. 행운의 숫자 : 09, 71

寅 50년생 불합리함에 대한 척결이 시급하니 미루지 말고 즉시 실행해야만 한다. 62년생 통념과 상식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다. 74년생 질적인 향상을 가져 올 것이다. 86년생 상당한 동력이 발생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1, 58

卯 51년생 목표점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현재의 판세로는 미약하다. 63년생 시기를 놓치고 나면 여러 가지로 지장이 많을 것이다. 75년생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난국에 봉착할 수 있다. 87년생 지대한 천착을 보이겠다. 행운의 숫자 : 74, 17

辰 40년생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다. 52년생 리듬을 잘 타야만 무탈하다. 64년생 직접적이지 않다면 나서지 말라. 76년생 여러 가지가 동시에 속출하는 흐름이다. 88년생 초심을 회복한다면 역동적인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1, 31

巳 41년생 저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볼 일이다. 53년생 기다리고 있으면 들어올 것이다. 65년생 진퇴를 분명히 해야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 77년생 확실한 어필이 필요한 때이다. 89년생 콧노래가 나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2, 39

午 42년생 묵묵히 진행하다 보면 의외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 54년생 가장 가까운 이가 제일 견고한 제방이 된다. 66년생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78년생 목표에 이르기 전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5, 65

未 43년생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비롯됨을 알라. 55년생 치열하게 고생한 만큼 보람도 느낄 것이니라. 67년생 똑같은 양상이더라도 수용하는 자세에 따라 달라진다. 79년생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당분간 함께 하자. 행운의 숫자 : 03, 22

申 44년생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56년생 확대 해석해서 전방위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68년생 변동으로 인해서 적응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겠다. 80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매끄러운 기저다. 행운의 숫자 : 59, 81

酉 45년생 가변적인 상황이니 탄력적으로 대처하자. 57년생 만남과 교류 속에 발전을 이끄는 정보가 있다. 69년생 상호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을 알라. 81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라. 행운의 숫자 : 68, 11

戌 46년생 당황하지 말고 의연히 대처하는 것이 합당하다. 58년생 자연스러움이 합리적으로 작용하리라. 70년생 먹구름 사이를 헤집고 희망의 붉은 해가 치솟는다. 82년생 차라리 아니함만 못한 결과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5, 66

亥 47년생 시종일관 빈틈없이 지속적으로 신경 써야만 할 것이니라. 59년생 미리 예상하고 있어야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71년생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다뤄져야 한다. 83년생 조건을 구비해야 추진력을 갖게 된다. 행운의 숫자 : 85, 0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